

Panel Discussion

통합전임의 교육과정 발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 창 무

머 리 말

간담췌외과분야는 간, 담도, 췌장에서 각각 발생한 병적 부분을 수술로 치료하는 분야이다. 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다루는 각 장기의 해부학적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특이하여, 수술이 어렵고, 합병증도 많은 편이며, 경우에 따라서 수술 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비교적 간단한 수술 (예를 들어,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제외하고, 외과 전공의로서 간담췌관련 외과수술을 집도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외과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간담췌에 관심이 있어 이를 전공하고자 하는 외과 의사들은 간담췌외과 전임의로 일정기간 다시 수련을 받게 되지만, 앞서 언급한 분야별 특성상 갈수록 전문화 되고 세분화되는 현실에서 올바른 간담췌외과 전임의 수련문제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론

각 기관마다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간담췌외과라는 한 분과가 실제로 적절히 세부전문화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간이식이라는 또 다른 특수분야를 활발히 다루게 되면서 전문화 정도는 점점 더 심화되어 갈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구조차원에서 볼 때, 모든 간담췌 수련 전임의들이 수련을 마치고, 대

형 전문화된 기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전임의 수련기관들은 나름대로의 학문적 위상을 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담췌 외과 수련을 마친 전임의 입장에서 앞으로 간담췌외과 분야에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게 하는 수련프로그램의 운영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충실히 해결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각 세분화된 분야별 상호 협동 및 의견조율이 잘 이루어만 진다면, 간담췌를 전공하고자 하는 전임의들은 각 세분화된 분야에 고루 참여 할 수 있어, 각 분야별 고유 의 전문화된 수술을 연마하고, 학문적 심화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수련을 마치고 나면, Enable Academic HBP Surgeon으로서의 자질을 겸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결 론

간담췌외과 전임의의 수련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현실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전임의 수련방향에 대한 세심한 고민과 배려가 앞으로 간담췌외과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수련을 받고 있는 전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현재의 수련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가능성을 올바르게 찾지 못한다면, 간담췌외과를 전공하고자 하는 의욕적이며 창의적인 젊은 외과의사 수는 향후 점차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